

2013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작성 자	엄 경 은
		작성일자	2013.01.17
회의일자	2013년 1월 17일	회의장소	마가의다락방 도서관
회의시간	17:00~18:00	구 분	임시이사회
참석임원	이사: 박보영, 김은희, 박재형, 임철, 김형석, 조성래, 로그레이스회숙		
의 제	1. 기본재산변경에 의한 정관변경 2. 법인명칭 제검토		

대표이사 박보영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정관에 의한 합법적인 이사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언을 선언하다

I. 보고사항

전차회의록 낭독

대표이사 박보영이 2012년 12월 2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낭독 및 승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 김형석이 낭독하고 대표이사 박보영이 이의를 물으니 이의제기가 없어 이사 김은희 동의와 이사 임철의 재창으로 만장일치로 전차회의록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II. 부의 안건

기본재산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 안건상정

대표이사 박보영이 기본재산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2011년 12월 기본재산처분(토지/건물_계양구 작전동 694-10)하고 토지(서구원당동808-2)를 구입하면서 약 4천만원정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사용용도가 처음 의도와 달리 신축건물이 소유자 박보영으로 되면서 건축설계비 지출(약 3천9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기본재산 현금5억이 현금 539,312,382원으로 변경되어 정관변경이 필요함을 말하고 다른의견없이 승인을 요청하니 이사 김은희 동의와 이사 박재형의 재창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법인명칭 제검토 안건상정

대표이사 박보영이 지난 2012년 12월 21일 임시이사회때 법인명칭변경을 '나눔의사람들'로 변경함이 통과되었는데 인천시청에 '나눔복지회'가 이미 있고 나눔과 관련된 단체이름이 많고 비영리단체이미지가 짙어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됨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으니 이사 박재형이 이미 10여년전부터 '나눔의사람들'로 모금활동을 해 왔고 방산에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눔의사람들'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 로그레이스 회숙은 미국에서 이미 모금활동을 '나눔의사람들'로 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이사 임철은 나눔이 흔한 것은 사실이며 나눔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사고나면

본 법인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도 고려해 볼 필요있다고
제시하니 다른이사들이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나눔의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의견을 모으고 다른의견이 없어 대표이사 박보영이 승인을 요청하고
이사 박재형의 동의와 이사 김형석의 재창으로 만장일치가결하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방산복지재단"의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다음에 기명하고 인
감날인 한다.

2013년 1월 17일

의 장 박 보 영



이 사 임 철



이 사 박 재 형



이 사 김 종 옥 (인)

이 사 김 형 석



이 사 최 진 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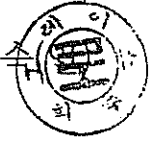
이 사 조 성 래



이 사 김 은 희



이 사 로그레이크스 회주



이 사 김 경 중 (인)